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국내유일 주 5일 52시간 매력 쿠팡, 배송인력 1만명 돌파

2020. 7. 23.

- **배송인력 직고용하는 회사는 쿠팡이 유일, 쿠팡 배송직원 6년만에 200배 늘어**
- **비결은 배송업계 국내 유일 주 5일 52시간, 연 15일 연차**
- **1만번째 배송직원은 여성, '쿠팡맨'에서 '쿠팡친구(쿠친)'로 더 가까이**

2020. 07. 23 서울 — 쿠팡의 배송직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업자수가 35만2천명(통계청, 작년 6월 대비)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쿠팡은 꾸준히 배송직원을 채용해 2019년 말 기준 5000여명에서 7개월 만에 2배로 배송직원을 채용했다.

배송직원 입장에서 쿠팡의 매력은 '지입제'를 기반으로 하는 배송업체와 달리 주 5일 52시간제 준수는 물론 연 15일연차, 4대 보험, 매년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유류비, 업무용 스마트폰, 신발구입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명절 쿠팡캐시 지급 등이 꼽힌다.

쿠팡은 2014년 쿠팡 배송직원 50명을 고용해 국내 최초로 로켓배송(익일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쿠팡이 직고용한 배송인력 수는 2014년 50명에서 2020년 현재 1만명을 넘어200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물량이 증가했지만 쿠팡은 배송직원들을 대거 채용하고 물류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한 혁신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쿠팡은물류 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물류 인프라의 기틀을 만들고, 고객이 어떤 제품을 주문할지 AI로 예측해 600만 종류의 선매입제품의 재고를 확보했다. 이런 투자를 통해 쿠팡 배송직원들이 다양한 제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 집 앞까지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2000명의 엔지니어들이 투입됐다.

1만번째 쿠팡 배송직원은 여성 '쿠팡맨'에서 '쿠팡친구(쿠친)'으로 더 가까이

고명주 인사부분 대표는 22일 오후 4시 인천4캠프를 방문해 1만번째 쿠팡 배송직원 김단아님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고 대표는 김단아님에게 축하 꽃다발과 사원증을전달했다. 쿠팡에는 150여명의 여성 배송인력이 활약하고 있다. 쿠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배송 인력의 이름을 '쿠팡맨'에서 '쿠팡친구(쿠친)'로 변경해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이날 밝혔다.

고 대표는 "쿠팡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물량이 늘었지만 쿠팡은 주5일 52시간제, 연 15일 연차 등 지입제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화물운송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단아님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문 교육과 멘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쿠팡친구' 이름처럼 고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배송직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IT기술에 대한 투자로 쿠팡 배송직원들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쿠팡은 신입 쿠팡 배송직원을위해 초기 물량을 일반 배송직원보다 적게 배정하고 멘토가 동승하는 등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쿠팡은 배송인력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휴게시간을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1시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휴게시간 의무' 제도를 7월부터 시작했다. 지난3월부터 모든 쿠팡 배송직원을 대상으로 원격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인력도 주기적으로 순회에 나서고 있다. 또한 배송직원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어라운드뷰가 설치된 오토차량을 지급해 오고

있다.

[사진 1] 쿠팡 인천4캠프 관계자들이 1만번째 쿠친 김단아님의 입사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 2] 1만번째 쿠친 김단아님의 입사를 축하하는 행사가 22일 인천4캠프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1기 쿠친(쿠팡맨) 황선호님, 1만번째 쿠친 김단아님, 고명주 쿠팡 인사부분대표.

[사진 3] 2014년 입사한 1기 쿠친(쿠팡맨) 황선호님이 1만번째 쿠친 김단아님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